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알리안츠가 당신의 자신감이 됩니다.



(무)알리안츠 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 재팬인덱스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무)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재팬인덱스형의 자산운용회사인 '알리안츠생명보험(주)'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한국씨티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알리안츠생명'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예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입금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알리안츠생명보험(주) <http://www.allianz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무)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재팬인덱스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7514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9.10.12
운용기간	2015.07.01 ~ 2015.09.30	존속기간	추행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	펀드재산보관회사	한국씨티은행
판매회사	알리안츠생명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상장주식의 주식인덱스 구성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 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여 낮은 비용으로 장기투자자와 자산배분을 통한 해당지역의 대표 주식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정 등을 통한 알파획득을 추구합니다. 		

▶ 자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AZ 파워인덱스 va재팬인덱스형	자산 총액 (A)	1,536	1,459	-5.01
	부채 총액 (B)	1	1	-5.28
	순자산총액(C=A-B)	1,535	1,458	-5.01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1,018	1,018	0.00
	기준가격 (E = C / D x 1000)	1,507.14	1,431.64	-5.01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결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결과

3분기 일본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7월 일본증시는 중국증시 패닉 및 그리스 문제로 오름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 엔화 약세 및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로 인하여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월초 발표된 2분기 단란 제조업지수가 예상치를 대폭 웃돌며 증시를 뒷받침하였습니다. 한편, 그리스 디폴트 문제로 구제금융 합의 이후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며 증시에 힘을 보였습니다. 8월 일본증시는 중국발 쇼크로 인한 글로벌 증시 조정 여파로 니케이225지수가 6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초 일본 기업들의 발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며 증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하루 기준으로 사상최대폭 떨어트린 뒤 사흘째 절하시키면서 일본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국 실물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위안화에 밀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일본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월중 금동락을 나타내었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일본 내각부의 9월 경제보고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엔저를 기반으로 기업수익이 개선되면서 소비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의 둔화가 아시아 및 관련국가로 파급됨에 따라 수출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 9월초 발표된 2분기 GDP 성장율은 소비 감소와 수출 둔화 영향으로 전기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3분기에는 실질 경제성장율이 다시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AZ 파워인덱스va재팬인덱스형 (비교지수 대비 성과)	-5.01 (1.71)	-3.63 (1.36)	2.34 (1.89)	5.78 (1.52)
비교지수(벤치마크)	-6.72	-4.98	0.45	4.26

※ 비교지수(벤치마크) : NIKKEI225 45.0%, 국고채(2~3년) 45.0%, MMI CALL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AZ 파워인덱스va재팬인덱스형 (비교지수 대비 성과)	5.78 (1.52)	12.92 (0.99)	42.47 (-1.78)	43.53 (-3.75)
비교지수(벤치마크)	4.26	11.93	44.25	47.28

※ 비교지수(벤치마크) : NIKKEI225 45.0%, 국고채(2~3년) 45.0%, MMI CALL 10.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추적오차	3.95	4.90	5.06

※ 추적오차란 일정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지수의 변동을 얼마나 충실히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해당 인덱스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기재합니다. 추적오차의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0	0	24	0	0	0	0	0	1	-2	22
당기	0	0	0	-75	0	0	0	0	0	0	-2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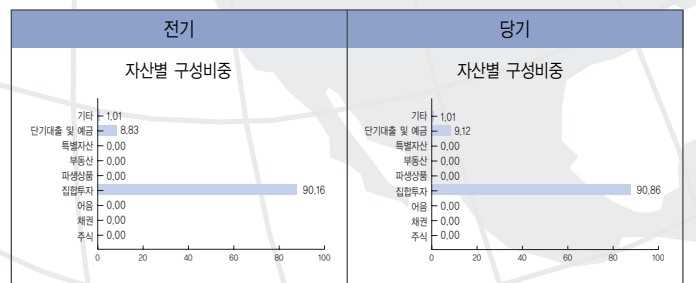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00)	0 (0.00)	0 (0.00)	0 (0.00)	1,325 (90.8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33 (9.12)	0 (0.01)	1,459 (100.00)
합계	0	0	0	1,325	0	0	0	0	0	133	0	1,459

※ () : 구성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택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할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비율	기준일(15.09.30)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15.07.01 ~ 15.09.30)	환헤지로 인한 손익 (15.07.01 ~ 15.09.30)
-	98.46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TIGER 국제3	45.97	6		
2	집합투자증권 미래재팬인덱스(주식-파생)	44.89	7		
3	단기상품 은대(한국씨티은행)	9.12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TIGER 국제3	수익증권	TIGER 국고채	661	671	대한민국	KRW	45.97
미래재팬인덱스(주식-파생)	주식형	미래에셋자산운용	663	655	대한민국	KRW	44.89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한국씨티은행	2009-10-12	133	1.15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2	0.13	2	0.1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2	0.14	2	0.14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중개·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664	0.0009	0.5673
당기	0.5664	0.0011	0.5675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5.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 백만원, %)

매 수	매 도		매매 회전율(주)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0	0	0	0.00	0.00

* 매매회전을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

0.00	0.00	0.00
------	------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펀드의 운용규모가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 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3조 제3호 및 제4호)